

清代『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과 의의*

김효신**

目 录

1. 서론
2.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 배경
 - 1) 『十三經注疏』의 성립과 通行本
 - 2) 새로운 校勘 성과의 자극
 - 3) 注·疏 습체의 재인식: 고전문헌의 심층구조
3.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과정
 - 1) 편찬 기획, 참여 학자, 작업의 결과
 - 2) 底本과 자료의 문제
4. 결론: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한계와 의의

1. 서론

清代의 校勘理論은 古典文獻이 원시 텍스트에서 필사본으로, 다시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轉化하는 역사적 과정을 새롭게 인식했던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古典文獻의 역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심화하는 데에는 嘉慶年間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當代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十三經注疏』의 고감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校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그러한 논쟁을 통해 校勘理論에 대한 당시 학계의 문제의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학

* 이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段顧論爭과 清代 校勘理論의 형성 연구」(서울대, 2017) 중 3장 “『十三經注疏校勘記』와 고전문헌 심층구조의 발견”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자들은 원래 여러 傳本과 풍부한 참고자료를 비교·검토하여 經典의 올바른 텍스트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校勘 작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하나로 수렴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과정에서 학자들은 經典 注疏의 습례가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漢代에 성립한 注와 唐宋代에 편집된 疏는 본래 독립적으로 유통되었는데, 宋代의 어느 시기에 그 둘을 함께 版刻하면서 텍스트의 혼란이 배태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嘉慶年間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배경과 구체적인 작업의 과정, 그리고 그 한계와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清代의 校勘理論이 宋代의 校勘守則과 달리 校勘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校勘을 일반적으로 ‘올바른 텍스트를 확정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데, 그 ‘올바른 텍스트’란 무엇이며 또한 ‘올바른 텍스트’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清代의 校勘理論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嘉慶年間 『十三經注疏』의 校勘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청대 교감이론의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校勘이 단지 對校와 같은 단순한 기능적 작업이 아니라 古典文獻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사실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 배경

1) 『十三經注疏』의 성립과 通行本

역대로 儒家의 經典을 총계하는 수는 변화를 겪었다.¹⁾ ‘十三經’이라는 개념

1) 『莊子』 「天運」의 ‘六經’에 관한 기록부터, 漢 武帝 때의 ‘五經’, 後漢代의 ‘七經’, 唐代의 ‘九經’과 ‘十二經’ 등 총계하는 수와 해당 경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지역·편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었다.

이 성립한 것은 北宋 시기였다. 唐代 후기 韓愈부터 孟子的 문화사적 위상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고 北宋 사대부들이 지속적인 ‘孟子昇格運動’²⁾을 벌인 결과, 北宋 元佑年間(1086~1094)에 『孟子』가 과거시험의 과목으로 채택되고 經典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宣和年間(1119~1125)에 ‘十二經’을 새긴 五代 後蜀의 『廣政石經』에 『孟子』를 보충하여 드디어 ‘十三經’이라는 개념이 완성되었다.

유가 경전의 經·注·疏를 한데 모아 간행한 최초의 판본은 南宋의 ‘越刊 八行本’이다. 이 판본은 紹興府의 兩浙東路 茶鹽司에서 乾道(1165-1173) 연간 이후 출간한 『周易』·『周禮』·『尚書』·『毛詩』·『禮記』·『左傳』·『論語』·『孟子』 등을 가리킨다.³⁾ 八行本 이후 經·注·疏에 『經典釋文』까지 삽입한 판본도 등장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經·注·疏·音義 合刻本 혹은 ‘附釋音本’으로 부른다. 이러한 형식은 紹熙 3년(1192)에서 嘉定말년(1224) 사이에 福建省 建陽 지역에서 간행된 ‘宋十行本’이 최초였다.⁴⁾ 그러나 이 十行本은 『儀禮』와 『爾雅』가 간행되지 않아서,⁵⁾ 아직은 ‘十三經’을 모두 彙刻한 형태는 아니었다.

‘宋十行本’의 木版은 이후 여러 차례 補修와 翻刻의 과정을 거친다. 明 正德 연간(1506-1521) 南京 國子監에서 補修와 翻刻을 거친 ‘十行本’을 모아 다시 補刻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十三經’을 최초로 모두 함께 彙刻한 ‘正德十行本’ 『十三經注疏』이다. 하지만 ‘正德十行本’ 역시 완전한 注·疏 合刻本이라고 할 수는 없다. ‘宋十行本’에 없는 『儀禮』의 경우, 注·疏를 합각하지 않

2) 周子同, 「孟子」, 『群經概論』(朱維鈞 編校, 『周子同經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190쪽 참조.

3) 長澤規矩也, 「越刊八行本注疏考」, 『書誌學論考』(『長澤規矩也著作集』 제1권, 東京: 汲古書院, 1982) 참조. 長澤規矩也에 따르면 『儀禮』·『公羊傳』·『穀梁傳』·『爾雅』는 八行本으로 간행되지 않았다. 『孝經』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4) 加藤虎之亮, 『周禮經注疏音義校勘記』(東京: 無窮會, 1957) 「引據各本書目解說·七經注疏合刻本」 “附釋音周禮注疏” 참조.

5) 阮元的 「十三經注疏校勘記凡例」, 長澤規矩也의 「正德十行本非宋本考」, 汪紹楹의 「阮氏重刻宋本十三經注疏考」에 따르면 『儀禮』·『爾雅』는 十行本으로 간행되지 않았다.

고 元刊 單經本에 『儀禮圖』와 『儀禮旁通圖』를 한데 합쳐 간행했기 때문이다.

모든 『十三經注疏』 通行본의 祖本이었던 ‘十行本’은 坊刻本으로서, 본래 校勘이 정밀하지 못했다. 阮元이 『重刊宋本十三經注疏總目錄附記』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十三經注疏』는 元代와 明代를 거치며 여러 번 새로 판각되면서도 校勘은 소략하여 譌謬가 매우 심했다. 비록 修補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대부분의 오류는 그대로 전해져 당시 주로 통용되던 ‘毛本’에 남아있는 실정이었고, 그마저도 흐릿하고 희미해져서 변식이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⁶⁾ 예를 들어 『易』 「咸象傳」의 疏에서는 한 단락 가운데 총 101자가 탈락되었고, 『春秋左傳正義』 「哀公」은 卷首의 『正義』 전체가 빠져있으며, 『禮記』 「曾子問」에서는 아예 한 페이지가 빠져 있다.⁷⁾ 阮元의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는 여러 通行본의 수많은 오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현재 배우는 사람들이 익히는 판본은 閩本⁸⁾· 監本⁹⁾· 毛本¹⁰⁾을 벗어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閩本은 宋十行本에서 나왔고, 監本은 閩本에서 나왔으며, 毛本은 또한 監本에서 나왔다. 閩本과 監本은 틀린 글자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脫簡이 특히 많다. 『毛詩』는 몇 章을 빼먹었고, 『周禮』는 어떤 관직을 빠뜨린 경우도 있다. 毛本의 『詩』에서는 「詩譜序」를 실지 않았고, 『左傳』에서는 「後序」를 누

- 6) 阮元, 「重刊宋本十三經注疏總目錄附記」, 『十三經注疏』(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逮兩宋, 刻本浸多, 有宋十行本注疏者, … 輾轉翻刻, 訛謬百出. 明監板已燬, 今各省書坊通行者惟有汲古閣毛本. 此本漫漶不可識讀, 近人修補, 更多譌舛.”
- 7) 汪紹楹, 「阮氏重刊宋本十三經注疏考」(『文史』 第3輯, 1962), 36~37쪽 참조.
- 8) 閩本은 正德本을 底本으로 삼아 11종의 注疏本을 重刻하였고, 『爾雅』는 『爾雅注疏』 元刻本을 底本으로 판각하였다. 『儀禮』의 경우는 어느 판본을 底本으로 삼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顧廣圻는 이 판본이 陳鳳梧 판본의 오류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陳鳳梧의 판본을 底本으로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 9) 萬曆 14년(1586)에서 21년(1593)에 北京의 國子監에서 閩本을 底本으로 十三經을 重刻하였는데, 이 판본이 바로 監本이다. 監本은 嘉靖本을 底本으로 하고, 따로 八行本과 十行本을 참조하여 補訂한 善本이라고 평가받는다.
- 10) 崇禎 元年(1628)에서 12년(1639) 사이에 江蘇省 常熟의 汲古閣에서 監本 혹은 重校監本을 底本으로 삼아 『十三經注疏』를 간행하였다. 汲古閣의 주인 毛晉(1599~1659)이 출간하였기 때문에 毛本으로 부르며, 汲古閣本이나 崇禎本으로 칭하기도 한다. 毛本은 清代까지도 지속적으로 翻刻本이 간행된다.

락했다. 또한 ‘魯’가 ‘魚’로 바뀌고 ‘亥’가 ‘豕’로 바뀌는 것과 같은 譌字가 곳곳에 서 속출하니 혼란스러워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민간에서 毛本을 坊刻本으로 또다시 重刊하면서 이러한 譌字가 두 배가 되었다.¹¹⁾

이렇듯 당시 학계에서는 이러한 통행본의 譌脫을 점차 심각한 문제로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十三經注疏』에 대한 두 가지 校勘 성과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어 새로운 『十三經注疏』 定本 편찬의 기대를 자극한다. 첫째는 일본의 山井鼎(1690~1728)이 輯校하고 物觀(1673~1754)이 補遺한 『七經孟子考文補遺』이고, 둘째는 浦鏜(?~1762)이 작성한 草稿를 나중에 沈廷芳(1702~1772)이 교정한 『十三經注疏正字』이다. 『七經孟子考文補遺』와 『十三經注疏正字』의 출현으로 『十三經注疏』를 새롭게 교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阮元이 『十三經注疏校勘記』를 편찬할 때도 이 두 책을 핵심적인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2) 새로운 校勘 성과의 자극

『七經孟子考文補遺』는 일본의 ‘佚存書’에 근거한 校勘 성과였다.¹²⁾ 당시 일본에는 律令시기 遣唐使가 전래한 唐代의 문헌과 鎌倉·室町 막부시기 五山の 승려들이 들여온 宋代의 문헌이 여러 博士家와 文庫에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15세기 上杉憲實(1411~1466)이 關東總管으로 부임하여 재건한 足利學校에는 특히 宋代 판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¹³⁾

11) 「宋本十三經注疏併經典釋文校勘記凡例」, 『十三經注疏校勘記』(文選樓本), 續修四庫全書: “今學者所習, 不外閩本、監本、毛本. 大較閩本即出於宋十行, 監本出於閩, 毛本又出於監. 閩, 監二本, 錯字略少, 脫簡特多. 毛詩或逸數章, 周禮間缺一職, 毛本詩少譜序, 左傳失刊後序. 且魯魚亥豕之訛, 觸處皆是, 禁不可理. 近日坊間, 又將毛本重刊, 則譌字又倍之.”

12) ‘佚存書’란 歐陽修 「日本刀歌」의 “佚書百篇今尙存”에서 따온 말로서, 일본의 林述齋가 중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일본에는 전승되었던 여러 문헌을 모아 『佚存叢書』를 편찬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김광일, 「사라진 중국책, 일본에서 살아남다: 일존서(佚存書) 전승의 문화적 배경과 그 의미」(『中國文學』 제57집, 2008), 357~359쪽 참조.

13) 足利學校遺蹟圖書館 編, 『足利學校貴重書目錄』(栃木縣: 足利學校遺蹟圖書館, 大正14年

18세기 일본에서 古學이 흥성하면서 足利學校가 소장하고 있던 宋代의 板本이 다시 주목을 끌게 되었다.

특히 古學의 권위자였던 荻生徂徠(1666~1728) 學派는 足利學校의 자료를 고전문헌의 교감 작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¹⁴⁾ 荻生徂徠의 제자인 太宰春臺의 『古文孝經』,¹⁵⁾ 根本遜志의 『論語集解義疏』,¹⁶⁾ 山井鼎·物觀의 『七經孟子考文補遺』 등 일본 古學이 뛰어난 校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足利學校가 소장한 宋版本을 핵심적인 자료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의 학계에서는 佚存書에 근거한 荻生徂徠 제자들의 校勘 성과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알리려 노력했고, 그 결과 『古文孝經』·『論語集解義疏』·『七經孟子考文補遺』가 『四庫全書』에 수록되기에 이른다. 이 세 책이 중국의 학계에 가한 충격은 상당히 컸는데, 이 때문에 狩野直喜는 일본의 古學이 乾嘉 시기 考證學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¹⁷⁾

이 가운데 『七經孟子考文補遺』는 근거 자료의 희귀함뿐만 아니라 200권이 라는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특히 『十三經注疏』 校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있었던 清代 학계에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七經孟子考文』은 山井鼎이 足利學校에 소장되어 있던 옛날의 필사본과 宋代의 여러 五經注疏 판본을 주요 자료로 하여 享保 11년(1726)에 탈고한 校勘記이다.

山井鼎이 세상을 뜬 享保 13년(1728), 荻生徂徠의 동생인 物觀이 막부의 명령을 받아 이 책의 補遺를 편집하였다. 物觀의 補遺 작업은 享保 15년(1730) 12월에 마무리되었으며, 다음 해인 享保 16년(1731) 6월에 山井鼎의

(1925)) 참조.

14) 후마 스스무(夫馬進),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서적」(『연행사와 통신사』, 서울: 신서원, 2008) 참조.

15) 太宰春臺, 『古文孝經』(『知不足齋叢書』, 北京: 中華書局, 1999), 太宰春臺의 享保 17년(1732) 序文 참조.

16) 根本遜志 校正, 『論語集解義疏』, 江戸: 大觀堂, 寬政 3년(1792),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服部南郭의 寬政 庚午年(1750) 序文 참조.

17) 狩野直喜, 「山井鼎と七經孟子考文補遺」, 『支那學文叢』(京都: 弘文堂, 1927), 207~209쪽 참조.

작업과 합쳐서 『七經孟子考文補遺』라는 제명으로 간행하였다. 『七經孟子考文補遺』가 중국에 전래된 후,¹⁸⁾ 汪啓淑 집안의 所藏本을 수집하여 『四庫全書』에 수록하였고,¹⁹⁾ 嘉慶 2년(1797) 阮元이 다시 『七經孟子考文補遺』 200卷을 翻刻하였다. 이 책을 翟灝가 1761년에 읽었고 盧文弨가 1779년에 읽었다는 기록을 보면,²⁰⁾ 아마도 18세기 중엽에는 중국 강남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七經孟子考文補遺』는 그 題名에서 알 수 있듯이 『周易』·『尙書』·『毛詩』·『春秋左傳』·『禮記』·『論語』·『孝經』의 ‘七經’과 『孟子』를 수록하고 있다. 山井鼎은 上杉憲實 父子가 足利學校에 기증한 『五經正義』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필사본과 목판본을 毛本과 비교·검토하여 校勘記를 작성하였는데, 「七經孟子考文凡例」와 각 문헌에 대한 「存舊」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²¹⁾

『十三經注疏正字』 역시 『七經孟子考文補遺』와 마찬가지로 『十三經注疏』에 대한 校勘記이다. 주로 의거한 텍스트는 監本·重修監本·陸氏閩本·毛本 등이며, 『經典釋文』의 경우 通志堂本을 기준으로 삼았다. 浦鏞은 각 판본을 대교하고 異文을 찾아내어 그 결과를 상세히 적고 있다. 자신이 오류를 파악하여 교정한 原文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版本의 출처를 표시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채용한 것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 확정할 수 없었던 字句는 판단을 보류하여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책에 대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평가를 살펴보면,²²⁾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18) 중국에서 이 책을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 최초의 사람은 杭州 飛鴻堂 汪啓淑(1728~1799)으로, 翟灝의 『四書考異總考』 卷32에 그 해제가 실려 있는데, 翟灝가 이 책을 읽었다는 해가 1761년이다. 狩野直喜, 「山井鼎と七經孟子考文補遺」, 192~198쪽 참조.

19) 『四庫全書總目提要』 「七經孟子考文補遺」: “一百九十九卷, 浙江汪啓淑家藏本, 原本題‘西條掌書記山井鼎撰, 東都講官物觀校勘.’”

20) 盧文弨, 「周易注疏輯正題辭」, 『抱經堂文集』 卷7 참조.

21) 山井鼎, 「七經孟子考文凡例」, 『七經孟子考文補遺』(北京: 中華書局, 1985) 참조.

22) 『四庫全書總目提要』 「十三經注疏正字」: “故是書所舉, 或漏或拘, 尙未能毫髮無憾. 至於參稽衆本, 考驗六書, 訂刊板之舛訛, 祛經生之疑似; 註疏有功於聖經, 此書更有功於註疏. 較諸訓

『十三經注疏正字』의 의의를 대체적으로 긍정하지만, 그 校勘이나 考證의 수준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十三經注疏校勘記』 「凡例」에서도 역시 『十三經注疏正字』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쉬워한다.

浦鏜의 책이 비록 꼼꼼하게 對校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옛날의 善本을 보지 못했고 최근의 文體로 唐代의 義疏를 읽어서 종종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의심하였다. 또한 여타 문헌의 通行本에 의거하여 경솔하게 원문을 고쳤다. 이는 義疏에서 인용한 것이 여타의 문헌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사실, 아울러 여타 문헌의 通行本은 唐代의 傳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²³⁾

말하자면 浦鏜이 학식이 부족했고 희귀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하지만 通行本에 대한 꼼꼼한 對校는 이후 阮元的 주도로 『十三經注疏校勘記』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²⁴⁾

『七經孟子考文補遺』와 『十三經注疏正字』의 학술적 수준과는 별개로, 이 두 책은 당시의 학자들에게 『十三經注疏』의 校勘과 重刊의 희망을 품게 하였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盧文弨(1717~1795)는 30여 년간 經典 校勘에 뜻을 품고 있었는데, 『七經孟子考文補遺』와 『十三經注疏正字』를 접한 후 그 실제 작업을 확신할 수 있었다. 盧文弨는 자신이 『周易注疏』를 교감하게 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經書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뜻을 둔 지 삼십년이 되었다. 乾隆 己亥(1779)에 친구(鮑廷博)가 나에게 일본 사람 山井鼎이 지은 『七經孟子考文補遺』라는 책을 보여줬다. 저 해외의 작은 나라에서도 오히려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있었다. 우리 중국의 舊本, 宋代의 梓本, 明代의 여러 官本과 坊刻本을 두루 모아 검토한 후 校勘하였는데, 그 의론이 채택할 만한 것이 있음에 감탄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

詰未明而自謂能窮義理者，固有虛談實際之分矣。”

23) 「宋本十三經注疏併經典釋文校勘記凡例」, 『十三經注疏校勘記』(文選樓本), 續修四庫全書: “但浦鏜雖研覈孜孜, 惜未見古來善本, 又以近時文體讀唐代義疏, 往往疑所不當疑. 又援俗刻他書, 肆意竄改, 不知他書不必盡同義疏所引, 而他書之俗刻, 又非唐代所傳之本也.”

24) 李慧玲, 「試論阮元『十三經注疏校勘記』得以問世的客觀條件」, 『東南學術』2013年第1期.

게도 그 古本과 宋本의 譌誤에 대해서는 끝까지 궁구하여 선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비로소 발분하여 經書를 刪訂하였는데, 먼저 『周易』부터 시작하여 이미 책을 완성하였다.

庚子(1780) 가을, 京師에 있으면서 嘉善 사람 浦鏜이 편찬한 『十三經注疏正字』 81권을 발견하였다. 같은 해에 大興 사람 翁祕校 覃溪(翁方綱)에게서 책을 빌려 돌아와 읽었는데, 스스로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진실로 뜻하지 않게 늙은 나이에 문득 이러한 대작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 중국 사람이 見聞이 더욱 넓고 지식이 더욱 면밀한 것에 기뻐, 스스로 그보다 뛰어나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가 진행하던 『周易』 작업 또한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十三經注疏正字』에서 좋은 것은 함께 취하고 그 부족한 바는 생략하여, 내가 교감한 『周易』에 반영하였다. 거듭 整頓하여 이 책을 완성하고, 이름을 『周易注疏輯正』이라고 하였다.²⁵⁾

통행본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대형의 校勘 성과가 출현하면서, 학계에서는 『十三經注疏』의 校勘이 단순한 誤字나 脫字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통행본의 오류는 오랜 시간 여러 차례 판각을 거듭하면서 글자가 잘못되거나 희미해지는 텍스트 표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문헌의 오류를 야기하는 더욱 심층적인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한다.

3) 注·疏 습체의 재인식: 고전문헌의 심층구조

(1) ‘兼義’의 의미

經典의 오류를 야기하는 심층의 원인에 대해 모호하게나마 처음으로 언급

25) 盧文弨, 「周易注疏輯正題辭」, 『抱經堂文集』 卷7: “余有志欲校經書之誤, 蓋三十年於茲矣. 乾隆己亥, 友人示余日本國人山井鼎所爲七經孟子考文一書. 歎彼海外小邦, 猶有能讀書者, 頗得吾中國舊本及宋代梓本, 前明公私所梓復三四本, 合以參校, 其議論亦有可採. 然猶憾其於古本宋本之譌誤者, 不能盡加別擇. 因始發憤爲之刪訂, 先自周易始, 亦既有成編矣. 庚子之秋, 在京師又見嘉善浦氏鏜所纂十三經注疏正字八十一卷, 於同年大興翁祕校覃溪所假歸讀之, 喜不自禁. 誠不意垂老之年, 忽得見此大觀. 更喜吾中國之有人, 其見聞更廣, 其智慮更周, 自不患不遠出乎其上. 雖然, 彼亦何可廢也. 余欲兼取所長, 略其所短, 乃復取吾所校周易, 重爲整頓, 以成此書, 名之曰周易注疏輯正.”

한 학자는 바로 山井鼎이다. 『七經孟子考文』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山井鼎은 疏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經文이나 注文의 의미와 어긋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현상을 문헌의 편집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經典에 대한 옛 사람들의 해설은 經典과 따로 유통되었다. 孔子가 『易傳』을 짓고 左氏가 『春秋傳』을 지을 때, 본래 經文을 끌어다 傳에 붙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孔穎達이 “『公羊傳』의 石經에는 經文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후대에는 간편한 것을 숭상하여 經文에 바로 註를 덧붙여서 배우는 사람들이 두 번 읽는 불편을 줄이려[省學者兩讀] 했을 것이다.

지금 孔穎達이 『五經正義』를 짓고 陸德明이 『經典釋文』을 지은 것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책이었지 疏義가 經傳에 섞여 있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에 목판에 판각하면서 편리함을 도모하여 한데 모아보려고 각 經傳에 疏義를 삽입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생각대로 原文을 바꾸거나 더하고 빼었다. 이때부터 원래의 책이 망가져서 다시 볼 수가 없었고 본래의 면모를 굉장히 많이 잃게 되었다.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五經正義』의 傳本을 검토해보니, 宋代의 木版本 이래 經과 傳이 어지럽게 섞이고 標題도 일치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異同이 조금 존재한다. 그런데도 후세의 학자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옛날의 형식도 모른다. 심지어 音義까지 註에 섞어놓고도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가 직접 毛詩學校에 가서 古本을 校讎해보니 본래 그 옛 모습을 잃지 않은 것이 매우 많다. 지금 그 一端을 여기에 기록하여 오래 전의 모습을 보존하고자 한다.²⁶⁾

唐代 孔穎達이 “『公羊傳』의 石經에는 經文이 없다”고 한 것처럼, 山井鼎 이전에도 經과 注가 원래 따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孔穎達이 『毛詩正義』에서 설명한 經과 傳의 유통 방식은 다음과 같다.

26) 山井鼎, 『七經孟子考文補遺』 권32, 「周南關雎詁訓傳」의 「謹按」: “古人解書, 各自別行, 孔子之作易傳, 左氏之作春秋傳, 本不引經附傳. 故孔穎達云, 石經公羊傳皆無經文, 斯可以觀也. 後世尚簡, 就經爲註, 省學者兩讀者, 或有之矣. 今按孔穎達作五經正義, 陸德明作經典釋文, 自是一部書, 而疏義不混于經傳, 後世梓者, 圖其利便, 萃見一處, 嵌入各經傳下, 稍以己意改換增損. 自是而後, 本書終廢, 不可復見, 大失本來之面目矣. 可不歎乎! 今閱五經正義本, 宋板以下, 經傳錯雜, 標題不一, 而其中稍有同異. 後世學者, 鹵莽滅裂, 而不問可否, 不知古式, 甚則至有音義却混于註者, 而不省矣. 臣向就足利學, 校讎古本, 其本頗有不失古者, 今記一端於此, 以存其舊云爾.”

漢代 초기에 지은 傳訓은 모두 經과 따로 유통되어, 『春秋』의 세 傳 역시 經文에 덧붙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石經으로 『公羊傳』을 새길 때도 經文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漢書』 「藝文志」에서는 『毛詩經』을 29권으로 저록하고 『毛詩詁訓』을 30권으로 저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毛亨의 『毛詩詁訓』이 經과 별도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馬融이 『周禮』에 注를 달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두 번 읽는 불편을 줄이고자[欲省學者兩讀] 本文도 함께 수록하였다”라고 했다. 즉, 東漢 이후부터 經과 注를 함께 신기 시작한 것이다. 『毛詩』의 경우, 누가 처음으로 經에 注를 덧붙였는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鄭玄의 箋은 원래부터 經과 傳 아래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毛詩經』은 29권이라고 했는데, 어느 卷을 합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 “周南”부터 “鄭氏箋”까지 총 16자가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제명한 것이 아니다. “周南關雎”부터 “第一詩國風”은 원래의 큰 스승이 題명한 것이고, “詁訓傳”은 毛亨이 題명한 것이며, “毛” 한 글자는 河間獻王이 덧붙인 것이고, “鄭氏箋”은 鄭玄이 스스로 제명한 것이다.²⁷⁾

이곳에서 孔穎達은 經과 注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漢石 經과 『漢書』 「藝文志」의 저록을 근거로 든다. 後漢 馬融의 『周禮注』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두 번 읽는 불편을 줄이고자[欲省學者兩讀]” 別行하던 經과 注를 통합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毛詩』의 경우 經은 29권인데 注는 30권이라는 점이다. 이때부터 經과 傳의 體裁가 서로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孔穎達은 16자로 된 標題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단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經에 여러 가지 注가 덧붙여지면서 중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²⁸⁾

이와 같은 孔穎達의 해설을 통해 經注를 통합한 텍스트의 역사성과 중층성

27) 『毛詩正義』 卷1, 「周南關雎詁訓傳」에서 “毛詩國風”을 해설하는 孔穎達의 疏: 漢初, 爲傳訓者, 皆與經別行, 三傳之文不與經連, 故石經書公羊傳皆無經文. 藝文志云, 毛詩經二十九卷, 毛詩故訓傳三十卷. 是毛爲詁訓亦與經別也. 及馬融爲周禮之注, 乃云欲省學者兩讀, 故具載本文. 然則後漢以來, 始就經爲注, 未審此詩引經附傳是誰爲之. 其鄭之箋當元在經傳之下矣. 其毛詩經二十九卷, 不知併何卷也. 自周南至鄭氏箋凡一十六字, 所題非一時也. 周南關雎至第一詩國風, 元是大師所題也. 詁訓, 毛自題之. 毛一字, 獻王加之. 鄭氏箋, 鄭自題之.”

28) 현대의 통행본인 『毛詩正義』에는 “鄭氏箋”이라는 3자가 빠져 모두 13자 밖에 없다.

을 확인할 수 있다. 唐宋代의 학자들 또한 孔穎達의 이 언급을 수도 없이 인용하면서 先秦의 經과 漢代의 傳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이해하였다. 그런데 山井鼎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인식에서 두 가지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첫째, 經과 傳이 처음에는 따로 유통되다가 나중에 통합되었던 것처럼, 經注와 疏 역시 원래는 別行本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시점에 합쳐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山井鼎은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현상이 木版本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筆寫本의 시대에는 텍스트를 한 부씩 베껴야 했기 때문에 筆寫 노동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筆寫의 대상을 가급적 줄여야 했다. 그래서 經注와 疏의 분리가 당연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經注本과 單疏本의 別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인쇄출판의 시대에는 텍스트를 일단 木版에 새기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經·注·疏를 함께 版刻하여 독자가 經注本과 單疏本을 각각 들추어보는 불편을 줄이려 했던 것이다.

둘째, 山井鼎은 이러한 經·注·疏의 合刻을 校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經·注·疏 合刻은 결코 생각만큼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우선 經注本과 單疏本을 합각할 때는 疏를 해당 經注에 대응하여 배치해야 했는데, 동일한 문헌이라도 당시 전승되었던 經注本과 單疏本의 體裁가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한 과정에서 經注와 疏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經·注·疏의 문자가 서로 어지럽게 섞이기도 하고, 편집자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글자를 고치기도 한다.

山井鼎은 足利學校에서 注·疏 合刻 이전의 筆寫本이나 單疏本을 직접 확인하여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는 오류는 注·疏 合刻이라는 심층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七經孟子考文補遺』에 수록된 자료를 신뢰한 盧文弨는 『周易注疏輯正』을 쓰면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七經孟子考文補遺』가 盧文弨

에게 미친 영향은 이러한 자료 제공의 측면보다도 注·疏 합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더 크다. 『七經孟子考文補遺』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책을 접한 후 盧文弨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 『周易』만은 『正義』의 각 조항을 조각조각 찢어서 注에 매달아 두어 오류를 불러일으킨 것이 많다. 『正義』는 본래 그 자체로 독립적인 책이었는데, 후인들이 經·注 아래에 덧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毛晉이 書名을 달 때 『周易兼義』라고 했으니, 이전에는 『正義』를 兼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형식 역시 당연히 宋代에 시작하였는데 注와 疏를 대충 합체하는 실수를 면하지 못했다. 『十三經注疏正字』 역시 宋代의 善本을 보지 못 하여 그 논의가 다 옳을 수 없었는데, 이는 현재의 官本을 옛날 모습에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²⁹⁾

여기에서 盧文弨는 山井鼎과 마찬가지로 원래 別行하였던 經注本과 單疏本이 宋代에 합각되어 注疏本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문헌의 원래 모습을 잃고 수많은 오류를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注·疏의 別行과 그 합체으로 인한 오류의 발생은 현재는 상식적 수준의 지식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참신한 인식이었다. 이 글에서 盧文弨가 특별히 ‘兼義’의 의미를 “『正義』를 겸한다”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당시의 학계에서는 別行하던 注·疏가 宋代에 합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四庫全書總目提要』 「周易正義十卷(內府刊本)」의 纂修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처음 題名은 ‘義贊’이었는데, 나중에 皇命으로 ‘正義’라 고쳤다. 그런데 이 책의 각 권 첫머리[卷端]에는 “兼義”라 題名하고 있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 하겠다. 「序文」에는 14권, 『舊唐書』 「經籍志」에서는 18권, 『直齋書錄解題』에서는 13

29) 盧文弨, 「周易注疏輯正題辭」, 『抱經堂文集』 권7: “周易一書, 獨於正義破碎割裂條繫於有注之下, 致有多謬戾者. 蓋正義本自爲一書, 後人始附於經注之下. 故毛氏標書名曰周易兼義, 明乎向之未兼也. 此亦當出自宋人, 而未免失之鹵莽正字, 亦未見宋時佳本. 故語亦不能全是此則今之官本爲近古也.”

권이라고 저록했는데, 이 판본은 10권으로서 王弼·韓康伯 註와 동일하다.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註에 맞추어 합친 것이 아닐까?³⁰⁾

이 提要의 纂修官은 각 卷 첫머리의 卷首題가 “周易兼義”로 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표하였는데, 이러한 의문의 제기 자체가 『正義』가 經注에 합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단지 역대의 목록에 저록된 卷數를 비교하여 체제의 변화만을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爾雅註疏十一卷」의 纂修官은 注와 疏의 혼란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注·疏 別行에서 찾았지만 확신하지는 못 하고 있다.

이미 註文을 나열하였는데, 疏에서 때때로 그 문장을 중복하여 서술하고서 단지 “郭註云云”이라고만 하였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또 따로 다른 설명도 없으니 자못 이해할 수가 없다. 어쩌면 처음에 疏와 註가 따로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原刻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살펴볼 수가 없다.³¹⁾

注·疏 別行의 인식은 盧文弨가 ‘兼義’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하고 宋代의 合刻을 지적한 이후 학계에 급속히 확산된다. 『四庫全書總目提要』가 편찬되고 약 20년이 지난 후, 『十三經注疏校勘記』를 작성할 때는 注·疏 合刻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명칭의 유래와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兼義’는 注·疏를 合刻한 것으로서, 『正義』를 취하여 함께 수록하였다는 뜻이다. 애초에는 아마도 注·疏를 통합한 傳本이 없었을 터인데, 北宋과 南宋 사이에 疏를 經·注에 덧붙이고서 그것을 ‘어느 經의 兼義’라고 불렀다. 이후부터는 아예 ‘어느 經의 注疏’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점차 변화했던 것이다.³²⁾

30) 『四庫全書總目提要』, 「周易正義十卷(內府刊本)」: “此書初名『義贊』, 後詔改『正義』. 然卷端又題曰『兼義』, 未喻其故. 序稱十四卷, 唐志作十八卷, 『書錄解題』作十三卷. 此本十卷, 乃與王韓註本同, 殆後人從註本合併歟?”

31) 『四庫全書總目提要』經部『爾雅註疏十一卷』, “惟既列註文, 而疏中時複述其文, 但曰郭註云云, 不異一字, 亦更不別下一語, 殆不可解. 豈其初疏與註別行歟. 今未見原刻不可復考矣.”

32) 『周易正義校勘記』卷1, 『十三經注疏校勘記』(文選樓本), 續修四庫全書: “按兼義字, 乃合刻注疏者, 所加取兼并正義之意也. 蓋其始, 注疏無合一之本, 南北宋之間, 以疏附于經注者, 謂

(2) 표면과 심층구조의 혼란: “欲省兩讀, 翻致兩傷”

盧文弨는 「重雕經典釋文緣起」(1791)에서 孔穎達의 “배우는 사람들이 두 번 읽는 불편을 줄이고자 本文도 함께 수록한다[欲省學者兩讀, 故具載本文]”는 언술을 바꾸어 “欲省兩讀, 翻致兩傷”이라고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이 글에서는 山井鼎이 인식했던 注·疏 합切的 문제점뿐만 아니라 『經典釋文』의 내용을 注와 疏 사이에 삽입할 때 생기는 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부터 전래된 經典은 모두 하나의 傳本이 아니다. 陸德明이 의거한 傳本과 賈公彥·孔穎達이 의거한 傳本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지금 陸德明의 책에서 내용을 따라 注疏本 가운데 덧붙이면서, 이것을 억지로 저것으로 대체하거나 저것을 억지로 이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두 번 읽는 것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양쪽에 모두 傷害를 입히게 된 것이다[欲省兩讀, 翻致兩傷].(강조는 인용자)³³⁾

“欲省兩讀, 翻致兩傷”의 여덟 글자를 통해 盧文弨는 ‘兼義’로 표현되는 ‘注·疏 합切’이나 ‘附釋音’으로 표현되는 ‘『經典釋文』 삽입’의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欲省兩讀, 翻致兩傷”이라는 인식을 분석의 틀로 이용해 고전문헌에 보이는 오류를 파악하게 되었다.

우선 經注本·『正義』·『經典釋文』은 分卷 체제가 동일하지 않았다. 처음 합切할 때는 대체로 단행본 『正義』의 卷數를 위주로 하여, 經注本의 經文과 注文을 나누어 재배치하였다.³⁴⁾ 이후에는 經注本의 分卷 체제에 따라 『正義』를 나누어 배치하기도 했으며,³⁵⁾ 經注本의 卷數나 『正義』의 卷數와는 상

之某經兼義. 至其後, 則直謂之某經注疏, 此變易之漸也.”

33) 盧文弨, 「重雕經典釋文緣起」, 『抱經堂文集』 권2: “古來所傳經典, 類非一本. 陸氏所見, 與賈孔所見本不盡同. 今取陸氏書附於注疏本中, 非強彼以就此, 卽強此以就彼. 欲省兩讀, 翻致兩傷.”

34) 예를 들어 『春秋正義』 36卷·『周禮疏』 50卷·『禮記正義』 70권 등은 모두 『舊唐書』 「經籍志」에서 저록하고 있는 『正義』의 卷數와 합치한다.

35) 예를 들어 『周易兼義』 9卷·『毛詩正義』 20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毛詩校勘記』: “考『正義』原書分四十卷, 其分二十卷者, 經注本也. 合併時, 取『正義』散入經注本之中, 而四

관없는 새로운 분권이 나타나기도 했다.³⁶⁾

그런데 분권의 문제는 단지 체제의 불일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分卷으로 이루어진 두 책을 기계적으로 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正義』의 내용이 經注本과 맞지 않는 경우, 『正義』에서 해당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인용한 經注本의 구절을 삭제하지 않아 중복이 생긴 경우, 어긋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편집자가 마음대로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해 버리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더욱이 『經典釋文』까지 삽입할 때는 그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注·疏 合刻보다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 원래 『經典釋文』은 각 경전에서 해당하는 한 글자만 표기하고 풀이나 해설을 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經典釋文』의 내용을 經注와 疏의 중간에 삽입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해당 글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억지로 글자를 고치거나 비슷한 글자로 바꾸어 놓는 일이 많았다.³⁷⁾

이와 같이 清代의 학자들은 注·疏 合刻을 인식한 후, 서로 다른 층위의 字句가 서로 섞이는 현상이나 分卷이나 體裁의 혼란으로 서로 대응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현상 등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에 해석하지 못 했던 여러 구절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³⁸⁾

注·疏 合刻의 인식은 결국 고전문헌 텍스트의 역사성과 중층성을 새롭게

十卷之舊, 遂不復存.”

36) 예를 들어 『毛詩』 70卷·『周禮』 42卷·『禮記』 63卷·『左氏傳』 60卷·『公羊傳』 28卷, 『穀梁傳』 20卷·『論語』 20卷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때부터 唐宋代 義疏의 원래 卷數를 알 수 없게 되었다. 陳鱣, 『經籍跋文』, “(穀梁疏)『文獻通考』『玉海』, 並引『崇文總目』, 作三十卷. 然『唐宋二志』『書錄解題』俱作十二卷. 疑『崇文總目』三十卷, 乃十二卷之誤. 趙希弁『讀書附志』載『春秋穀梁傳注疏』二十卷, 所見注疏合併, 已作二十卷. 至今不改, 遂失其原.”

37) 盧文弨, 『抱經堂文集』 卷2 「增校王伯厚詩攷序」; 「重雕經典釋文緣起」 참조. 물론 『經典釋文』이 변형되는 원인이 기계적인 合刻 때문만은 아니다.

38)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2 「正義刊本妄改」; 卷3, 「注疏舊本」; 臧庸, 『拜經堂文集』, 「重雕宋本爾雅書後」; 段玉裁,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등 참조.

깨닫게 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孔穎達이 『毛詩』 題名 16字의 여러 층위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각 글자의 유래와 역사성을 밝히고 있듯이, 清代 학자들은 “欲省兩讀, 翻致兩傷”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전문헌 전반에 대하여 그 구성요소의 중층적 성격을 규명하기 시작한다.

고전문헌 목판본의 표면에는 유래와 층위가 동일하지 않은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올바른 교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층위를 다시 분리하여 그 유래를 밝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의 표면 아래 잠복해 있는 ‘심층구조’를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심층구조’란 텍스트의 겉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의 구성체를 의미한다.

특히 經典의 심층구조를 탐색하는 데에는 單疏本과 宋刻本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嘉慶 연간(1796~1820) 초기부터 單疏本과 宋刻本을 이용하여 특정 經典의 심층을 파악하는 성과가 속속 출현한다. 그리고 清代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텍스트’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서히 고조되었다. 이때부터 『十三經注疏』 전체에 대해 처음부터 교감을 거친 후 重刊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한 의견을 가장 처음 제기한 학자는 臧庸이다. 宋本을 바탕으로 『爾雅』를 校勘하고 간행한 臧庸은 이렇게 말한다.

嘉慶 2년(1797): 최근 경을 읽는 선비들은 대부분 『十三經注疏』의 重雕를 생각하면서도 아직 시작하는 자가 없었다. 아마도 그 작업의 경비가 막대하며, 善本 역시 한꺼번에 모두 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³⁹⁾

嘉慶 4년(1799): 뭇 지역에는 經典을 연구하는 학자도 많고 경전의 善本 또한 많다. 내가 예전에 접한 것으로는 『禮記』·『周禮』·『儀禮』의 單注本, 『儀禮』의 單疏本 등이 있는데 모두 宋代의 훌륭한 판본이었다. 어떻게 하면 공을 위해 나를

39) 臧庸, 「重雕宋本爾雅序」, 『拜經堂文集』: “近日讀經之士, 多思重雕十三經注疏, 已未有發軔者. 蓋因資費浩繁, 善本亦難一時具得.”

버리는 志士를 얻어 그런 문헌을 차례로 간행할 수 있을까? 『爾雅』는 비록 작은 經이지만, 이것부터 시작하여 ‘十三經注疏’ 전체를 간행하는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⁴⁰⁾

『十三經注疏』 전체를 교감하여 간행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臧庸은 우선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전을 하나씩 교감하여 간행하는 기획을 제안하며, 자신이 『爾雅』를 校勘하였다는 사실을 학계에 알린다.

顧廣圻도 嘉慶 5년(1800) 宋本 『儀禮』 疏에 대한 跋文을 쓰면서 ‘十三經’의 校勘·重刊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⁴¹⁾ 顧廣圻는 經典 텍스트의 심층을 파악하는 데에 宋刻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宋刻本을 이용해 경전의 텍스트를 다시 재구성한다면 당시 통행본의 誤謬를 일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일개 학자의 신분으로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재주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계 전반의 협력 작업이나 조정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十三經注疏』의 校勘과 重刻을 추동할 문제의식, 새로운 자료, 기초적 校勘理論이라는 조건은 이미 마련되었다. 이제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인력과 경비를 조직할 수 있는 현실적 권력과 재력을 갖추면 되었다.

3.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과정

사실 淸 朝廷에서도 『十三經注疏』의 校勘과 重刊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자신의 치세 중반부터 三通館과 四庫全書館 등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문헌 정리 사업을 진행한 乾隆帝는 乾隆 56년(1791) 詔書를 내려 서예가 蔣衡이

40) 臧庸, 「重雕宋本爾雅書後」, 『拜經堂文集』: “吳中多研經之士, 又多善本經書. 鏞堂昔年所見, 有單注三禮、單疏儀禮, 皆宋槧善本. 安得大公無我之志者, 爲之次第刊行. 爾雅雖小經, 卽以此爲刻十三經注若疏之權輿也可.”

41) 顧廣圻, 「儀禮疏五十卷(宋刻本)」, 『顧千里集』 참조.

필사한 『十三經』을 校勘하고 石經을 제작하라고 명한다.⁴²⁾ 이렇게 제작한 石經이 ‘乾隆石經’이다. 이 石經은 기본적으로 淸 皇室의 영광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지만, 여기에는 당시 ‘十三經’의 正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乾隆 54년(1789) 翁方綱이 上奏하여 科擧의 응시생들이 誤謬가 많은 수험용 교재를 보고 시험을 치르는 폐단을 보고한 이후,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민간에서 출간한 수험용 교재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⁴³⁾ 하지만 과거 시험 답안지에 여전히 수험용 교재의 흔적이 나오자, 다시 詔書를 내려 발각된 수험생은 시험자격 정지를 명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乾隆帝는 『十三經注疏』 武英殿本을 간행하고 石經을 제작하는 등 正本 보급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무위에 그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⁴⁴⁾ 朝廷에서는 과거 시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經典의 校勘과 重刊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지식인들도 조정의 금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校勘을 거친 善本을 구해야 했다.

1) 편찬 기획, 참여 학자, 작업의 결과

이렇게 시대적 조건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嘉慶 4년(1799) 11월에 당시 나이 서른여섯의 阮元이 浙江巡撫로 부임한다.⁴⁵⁾ 개별 학자에게는 없었던 권력과 재력이 있는 阮元의 부임으로 『十三經注疏』의 校勘 작업은 현실적인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다.

阮元은 浙江巡撫를 맡기 전에도 江南 지방의 학자들을 모아 여러 서적을 편찬한 경험이 있었다. 乾隆 60년(1795) 阮元은 浙江學政에 부임한 후,⁴⁶⁾ 李

42) 劉錦藻, 『清續文獻通考』(萬有文庫本, 上海: 商務印書館, 1937) 권96, 「學校三」 참조.

43) 『清續文獻通考』 卷97, 「學校四」, 乾隆 54年; 乾隆 57年; 乾隆 58年 條 참조.

44)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乾隆朝上諭檔』, 乾隆五十九年十月十五日 上諭 참조.

45)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阮元年譜』 卷1 「嘉慶四年十一月初三日」 條 참조.

46)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阮元年譜』 卷1 「乾隆六十年八月二十四日」 條 참조.

銳·周治平·錢大昕 등과 『疇人傳』의 작업에 착수하였고,⁴⁷⁾ 臧庸을 主編으로 20여 명의 학자들을 조직한 후 『經籍纂詁』의 편찬을 시작하였다.⁴⁸⁾ 이때는 또 揚州에 있는 자신의 藏書閣 文選樓에서 山井鼎의 『七經孟子考文補遺』를 간행하기도 하였다.⁴⁹⁾ 나중에 兩廣總督으로 부임하였을 때는 學海堂을 세우고 經典에 관한 清代의 연구업적을 모두 모아 『皇清經解』를 간행하였다. 이렇듯 學政·巡撫·總督을 맡으면서 진행한 여러 가지 활동을 살펴보면, 阮元은 당시 최고의 학술 프로젝트의 조직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阮元 스스로 經典의 校勘 작업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어, 科擧 합격 이전부터 『十三經注疏』 毛本을 교감 한 바 있었다.⁵⁰⁾ 또한 登科 후 ‘石經校勘官’에 임명되어 『儀禮』, 『爾雅』, 『毛詩』의 初校를 보기도 하였다.⁵¹⁾

阮元은 『經籍纂詁』의 편찬을 위해 西湖 白沙堤 行宮 동쪽에 50間的의 건물을 세웠었는데, 다시 巡撫로 부임한 嘉慶 5년(1800) 5월 이곳에 書院을 개창하고 ‘詁經精舍’라고 명명한다.⁵²⁾ 詁經精舍를 개창한 후 阮元은 곧바로 ‘十三經局’을 설치하고 校勘記 작업을 수행할 인력을 모은다.⁵³⁾ 특히 李銳나 臧庸과 같이 기존에 『經籍纂詁』와 『疇人傳』의 작업을 함께 한 학자들이 『十三經注疏 校勘記』의 작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⁵⁴⁾

47) 중국 역대의 천문학자와 수학자들 300여 명(외국인 41명)에 대해 기록한 傳記로서, 총 46卷 33만 7천여자의 대형저작이다. 乾隆 60년(1795)에 시작하여 嘉慶 4년(1799)에 완성하였다.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卷1 참조.

48) 『經籍纂詁』는 唐代 이전 문헌의 本文이나 注釋에 보이는 訓詁 자료를 모아 편집한 일종의 사전으로 116卷으로 구성되었다. 嘉慶 2년(1797) 1월에 시작하여 3년(1798)에 완성하고 4년(1799) 12월에 간행한다.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卷1 참조.

49)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卷1, 「嘉慶四年十一月初三日」條 참조.

50) 段玉裁, 「十三經注疏釋文校勘記序」, 『十三經注疏校勘記』(文選樓本), 『續修四庫全書』; 張鑑, 『雷塘庵主弟子記』 卷2, 「嘉慶十一年冬十月」條 참조.

51)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卷1, 「乾隆五十六年十一月」條; 阮元, 「儀禮石經校勘記序」, 『擘經室集』 1集 卷2; 張鑑 撰, 『雷塘庵主弟子記』 卷1, 「乾隆六十年四月」條 참조.

52) 阮元, 「西湖詁經精舍記」, 『擘經室集』 2集 卷7 참조.

53) ‘十三經局’은 정식적인 官制로 설립된 기구는 아니었으며, 단지 詁經精舍에서 『十三經注疏校勘記』의 작업을 수행하는 팀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듯하다. 黃丕烈的 「百宋一廬賦注」에 ‘十三經局’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阮元은 이러한 집체적인 편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의 방향과 방침을 설정한 후 학자들이 분담하여 초고를 작성하면 이를 한데 모아서 검토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했다. 개별 학자들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자신은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했던 것이다. 『十三經注疏校勘記』의 작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 문헌별로 담당자를 정한 후 교감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十三經注疏校勘記』의 分校者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번	分校者	字/號	출신	신분	담당 문헌
1	李銳 (1768~1817)	尙之 四香	江蘇 元和	生員	『周易』·『穀梁』·『孟子』
2	徐養原 (1758~1825)	新田 心田 飴庵	浙江 德清	貢生	『尚書』·『儀禮』
3	顧廣圻 (1766~1835)	千里 思適齋	江蘇 元和	生員	『毛詩』
4	臧庸 (1767~1811)	在東 拜經堂	江蘇 武進	監生	『周禮』·『公羊』·『爾雅』
5	洪震煊 (1770~1815)	百里 櫛堂	浙江 臨海	生員	『禮記』
6	嚴杰 (1763~1843)	厚民	浙江 錢塘	監生	『左傳』·『孝經』
7	孫同元 (未詳)	與人 雨人	浙江 仁和	生員	『論語』

이렇게 일곱 명의 학자들은 자신이 분담한 작업을 완성하여, 嘉慶 7년(1802)에서 8년(1803) 사이 十三經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臧庸은 「送姚文溪大令還濟南序」에서 자신이 嘉慶 7년 9월에 분담한 교감작업을 마쳤음을 말하고 있다.⁵⁴⁾

54) 阮元, 「李尙之傳」, 『擘經室集』, 2集 卷4; 「臧拜經別傳」, 『擘經室集』, 2集 卷6 참조.

55) 臧庸, 「送姚文溪大令還濟南序」, 『拜經堂文集』(續修四庫全書), 卷4: 「儀徵阮公撫浙之明年,

顧廣圻의 경우도 嘉慶 8년 이전에 『毛詩注疏』校勘記의 초고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嘉慶 8년 段玉裁에게 편지를 보내어 『毛詩』 「唐風·椒聊」의 교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의한다.

제가 어르신께서 考定하신[尊定] 『毛詩傳』을 보충하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하지만 「椒聊」시의 圖說에 관해서는 여전히 어르신께서 考定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阮中丞을 위하여 「考證」을 쓸 때는 어르신께서 考定하신 내용을 신지 않아서 따로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考定하신 내용을 보니 「考證」를 채택한 부분이 많은데, 이 시에 대해서만은 제 의견에 따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전에 제기했던 의견을 끌어다가 앞에 덧붙여 놓았으니, 살펴보고 채택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⁵⁶⁾

이 편지에서 顧廣圻가 말하는 「考證」이란 『毛詩』校勘記의 草稿를 일컫는 말이다. 그 草稿를 段玉裁에게 보내어 자문을 받아 확정된 것이 바로 “어르신 의 考定本[尊定]”이다. 李慶은 이 편지를 嘉慶 8년에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⁵⁷⁾ 이렇게 보면 顧廣圻가 자신이 맡은 『毛詩』校勘記의 草稿를 완성한 것은 그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臧庸과 顧廣圻의 작업 상황을 통해 보면 다른 分校者들도 대략 비슷한 시기에 草稿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段玉裁는 「春秋左傳校勘記目錄序」의 말미에 “嘉慶八年冬至日”이라는 日期를 첨부하고 있는데,⁵⁸⁾ 이 글은 나중에 약간 수정되어 「春秋左傳注疏校勘記序」라는 제명과 阮元의 서명으로 『十三經注疏校勘記』에 수록된다.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는 「春秋左傳校勘記目錄序」가 『春秋左傳注疏校勘記』의 서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校勘記의 검토본은 嘉慶 8년(1803) 冬至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校勘十三經，招鏞堂與其事，起三載壬戌九月，鏞堂分校者先竣，因請歸。”

56) 顧廣圻, 「與段大令論椒聊經傳書」, 『顧千里集』卷7: “委補尊定毛傳, …… 唯椒聊詩圖說, 向與尊定者不同. …… 此前爲阮中丞撰考證時所以不載尊定而別作云云者也. 今見尊定稿中, 頗有用考證者, 而此經未改, 故敢引伸前說, 附呈左右, 幸覽而采之.”

57) 李慶, 「新訂顧千里年譜」, 『顧千里研究(增補本)』, 74~76쪽 참조.

58) 段玉裁, 「春秋左傳校勘記目錄序」, 『經韻樓集』卷4 참조.

阮元은 「宋本十三經注疏併經典釋文校勘記凡例」에서 “각 經을 나누어 교감을 맡기고 다시 내가 직접 교감을 가했다[授經分校, 復加親勘]”⁵⁹⁾라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각 經典의 「校勘記序」에 따르면, 자료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작업을 총괄하여 지휘하면서 草稿와 校訂稿를 수합하고 마지막으로 刊行을 주도한 것은 阮元이다. 그런데 阮元이 浙江巡撫의 관직을 수행하면서 『十三經注疏校勘記』의 제반 업무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그 방대한 분량의 문헌에 대해 “직접 교감을 가했다”는 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校勘記의 草稿를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는 있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자신이 판단을 내려 확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經典을 분담하여 교감하지는 않았지만, 校勘記의 草稿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존재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사람이 바로 段玉裁였다. 위에서 인용한 顧廣圻의 편지나 『十三經注疏校勘記』 文選樓本 등 곳곳에서 段玉裁가 校勘記의 편찬에 관여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道光 5년(1825) 嚴杰은 校勘記 작성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校勘記가 완성되면, 阮元은 그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段玉裁에게 보냈다. 段玉裁가 顧廣圻가 교감한 『詩經』을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채택했으면서도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크게 노하였다. 段玉裁는 顧廣圻가 교정한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배척하였다.⁶⁰⁾

또한 『十三經注疏校勘記』의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段玉裁가 쓴 글이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이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언급이 자주 나온다.

59) “授經分校, 復加親勘” 구절은 각 경의 「校勘記序」에서 매년 중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60) 蕭穆, 「記方植之臨盧抱經手校十三經注疏」, 『敬孚類稿』: “乙酉, 嚴厚民云: ‘校勘記成, 芸臺寄與段茂堂復校. 段見顧所校『詩經』, 引用段說, 未著其名, 怒之. 於顧所訂, 肆行駁斥.’”

嘉慶 7년(1802): 최근 3년 동안 『說文解字』를 단지 세 쪽밖에 보지 못 했습니다. 비록 阮公의 큰 뜻으로 인해 도저히 사양할 수 없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注疏』의 「考證」을 다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니 힘에 부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또한 顧廣圻와 徐養原 두 젊은 친구를 추천하여 그 일을 사양했습니다.⁶¹⁾

嘉慶 9년(1804): 제 나이 아직 일흔인데, 여든 아흔 먹은 사람들처럼 눈이 침침하여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난 3년이 후회스러우니, 다른 사람의 일로 바빠서 내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拙作이 완성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니, 이른바 잘못 하나를 저지른 것이겠지요.⁶²⁾

嘉慶 9년(1804): 내가 阮梁伯을 위해 『十三經校勘記』를 考定하였다.⁶³⁾

嘉慶 14년(1809): 예전에 내가 阮梁伯을 위해 『十三經校勘記』를 監修[修]할 때 『文苑英華』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⁶⁴⁾

당시 段玉裁는 필생의 역작인 『說文解字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편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저술이 지체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劉台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考證」이라는 題名이 붙은 校勘記의 草稿를 검토하려는 학자적 욕망에서 스스로 참여한 것이었지만, 고단한 작업으로 인한 한탄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校勘記 편찬사업의 초기 3년 동안 70세 노인이 감당하기 힘든 작업의 밀도를 반증한다. 또한 “考定[定]”이나 “監修[修]”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듯이, 草稿에 대한 학술적 검토에 段玉裁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黃丕烈 역시 「士禮居重雕嚴州本儀禮經注緣起」에서 “段若膺 선생이 『校勘

61) 段玉裁, 「與劉端臨第二十九書」, 『經韻樓文集補編』 卷下: “今年一年, 『說文』僅成三頁, 故雖阮公盛意而辭不數文, 初心欲看完注疏考證, 自顧精力萬萬不能. 近日亦薦顧千里、徐心田兩君而辭之.”

62) 段玉裁, 「與王懷祖第一書」, 『經韻樓文集補編』 “弟七十餘耳, 乃昏眊如八九十者, 不能讀書, 唯恨前此三年, 爲人作嫁衣而不自作, 致此時拙著不能成矣, 所謂一個錯也.”

63) 段玉裁, 「跋黃蕘圃蜀石經毛詩殘本」, 『經韻樓集』 卷1: “余爲阮梁伯定十三經校勘記.”

64) 段玉裁, 「與孫淵如書」, 『經韻樓集』 卷5: “昔年愚爲阮梁伯修十三經校勘記, 據英華補之.”

記』를 考定한 일은 이미 진술하였다”⁶⁵⁾고 언급한 것을 보면, 段玉裁가 校勘記의 草稿를 감수하여 확정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段玉裁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글이 없기 때문에, 그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汪紹楹은 『十三經注疏校勘記』 전체를 段玉裁가 主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⁶⁶⁾ 關口順은 段玉裁의 부분적 監修만 인정하고 있다.⁶⁷⁾ 분명한 것은 段玉裁가 최소한 『毛詩』와 『左傳』은 전체를 검토하였고, 古音이나 古今字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段玉裁의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완성된 『十三經注疏校勘記』는 阮元 혹은 段玉裁의 再校를 거쳐, 嘉慶 11년(1806) 10월 阮元의 文選樓에서 『宋本十三經注疏校勘記』 217卷과 『經典釋文校勘記』 26卷을 刊行한다.⁶⁸⁾ 孫殿起的 『販書偶記』에서는 “文選樓本『十三經注疏校勘記』 245卷”을 기록하고 있는데,⁶⁹⁾ 이 嘉慶十三年本은 嘉慶十一年本의 重刻本이다.⁷⁰⁾ 重刻 文選樓本에는 段玉裁의 序가 있고, 『十三經注疏校勘記』 217卷, 『釋文校勘記』 25卷, 『周易略例校勘記』 1卷, 『孟子音義校勘記』 2卷의 총 245卷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文選樓本은 『十三經注疏』의 本文은 수록하지 않고 校勘 대상이 되는 구절만 발췌하여 異文을 나열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校勘記’만 편집하고 있다. 이렇게 校勘記만 수록한 『十三經注疏校勘記併釋文校勘記』를 本文까지 새롭게 판각한 南昌府學本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十三經注疏校勘

65) 黃丕烈, 「宋嚴州本儀禮經注精校重雕緣起」: “段若膺先生定校勘記, 既臚陳之.”

66) 汪紹楹, 「阮氏重刻宋本十三經注疏考」 27~28쪽 참조.

67) 關口順 撰, 水上雅晴 譯注, 「『十三經注疏校勘記』略說」 참조.

68) 『十三經注疏校勘記』(文選樓本)의 扉葉題는 “宋本十三經注疏校勘記二百十七卷附釋文校勘記廿六卷”이다. 張鑿, 『雷塘庵主弟子記』 卷2, 「嘉慶十一年冬十月」條: “纂刊十三經校勘記二百四十三卷成” 참조.

69) 孫殿起, 『販書偶記』 卷3: “『十三經注疏校勘記』并『釋文校勘記』二百四十五卷, 揚州阮元恭撰, 嘉慶戊辰(1808)揚州阮氏文選樓刊. 首有段玉裁序.”

70) 關口順 撰, 水上雅晴 譯注, 「『十三經注疏校勘記』略說」(劉玉才·水上雅晴 主編, 『經典與校勘論叢』,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5), 227쪽; 231~232쪽 참조.

記』‘文選樓本’이라 부른다. 그 전체적인 體裁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文選樓本은 陸德明의 『經典釋文』과 孫奭의 『孟子音義』의 校勘記를 經·注·疏의 校勘記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校勘의 성과를 반영하여 『十三經注疏』의 本文까지 모두 간행한 것은 『重刊宋本十三經注疏』였다. 嘉慶 19년(1814) 阮元이 江西巡撫로 부임한 이후 江西南昌府學에서 『宋本十三經注疏』를 重刊하였는데, 阮元은 「重刊宋本十三經注疏總目錄附記」에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 『十三經注疏校勘記』를 작성하였다. 비록 단지 十行本과 單疏本을 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사실상 이 두 판본에 근거한 것이었다. 嘉慶 20년(1815)에 내가 江西에 왔는데, 武寧 盧宣旬이 내 『校勘記』를 읽고서 宋本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南昌給事 黃中傑 또한 毛本の 오류를 가슴아파했다. 그래서 내가 소장한 十一經을 南昌學堂에서 重刻하기로 하였다. 또한 黃丕烈이 소장한 單疏 二經을 빌려 校勘하여 증각하였다. 鹽巡道 胡稷이 吳에서 구입한 十一經을 가지고 내가 소장한 十一經 중에 殘缺된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래서 宋本注疏가 다시 세상에 통행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단지 江西의 학자들만이 私有하는 것이겠는가!⁷¹⁾

이것이 嘉慶 21년(1816)에 판각한 南昌府學本 『重刊宋本十三經注疏校勘記』이며,⁷²⁾ 통상적으로 阮本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重刊한 南昌府學本 『十三經注疏』 本文에 대해서 阮元조차 확신이 없었던 듯하다. 嘉慶 22년(1817) 兩廣總督으로 취임한 阮元은 廣州에 學海堂을 설치하고 道光 9년(1829) 『皇清經解』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때 文選樓本 『校勘記』만 수록하고 南昌府學本 『十三經注疏』를 채용

71) 阮元, 「重刊宋本十三經注疏總目錄附記」, 『十三經注疏』: “元舊作十三經注疏校勘記, 雖不專主十行本、單疏本, 而大端實在此二本. 嘉慶二十年, 元至江西, 武寧盧氏宣旬讀余校勘記而有摹于宋本, 南昌給事中黃氏中傑亦苦毛板之朽, 因以元所藏十一經至南昌學堂重刻之, 且借校蘇州黃氏丕烈所藏單疏二經重刻之, 近鹽巡道胡氏稷亦從吳中購得十一經, 其中有可補元藏本中所殘缺者, 於是宋本注疏可以復行於世, 豈獨江西學中所私哉.” 『擘經室集』 3집 권2에는 「江西校刻宋本十三經注疏書後」의 題名으로 수록하고 있다.

72) 阮元, 「重刊宋本十三經注疏總目錄附記」: “二十一年秋, 刻板初成.”

하지 않았다. 阮元의 아들 阮福은 『皇清經解』에 南昌府學本을 수록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삼가 생각해 본다. 이 책이 아직 版刻과 校勘을 마무리 하지 못 한 상황에서 家大人께서 명을 받아 河南巡撫로 옮기게 되었다. 校書하는 사람들이 家大人이 江西에 있을 때처럼 정밀하게 하지 못하였다. 錯字가 매우 많아, 監本、毛本에서는 틀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틀린 것도 있으니,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살펴서 읽어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文選樓本 『校勘記』를 增刪한 것 역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었으니, 家大人이 자못 이 판본을 좋다고 여기지 않았다.⁷³⁾

南昌府學本 『十三經注疏』는 각 經典의 앞부분에 『四庫全書總目提要』의 내용과 「校勘記序」·「引據各本目錄」을 수록하고 있다. 그 뒤에 經·注·疏의 本文을 수록하고 각 卷의 말미에 「校勘記」를 덧붙여 놓았다. 『經典釋文』의 경우는 기존 『十三經注疏』를 의거한 판본이 달라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南昌府學本은 기본적으로 經·注·疏를 合刻하고 『經典釋文』이나 『孟子音義』를 注와 疏 사이에 삽입한 판본을 기본으로 했지만, 『周易』의 경우는 王弼의 『周易略例』와 陸德明的 『經典釋文』을 독립적으로 수록한 ‘閩本’의 형식을 채택하여 그 校勘記 역시 따로 수록하고 있다.

南昌府學本의 校勘記는 文選樓本에 비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다. 또한 文選樓本에서 校勘한 내용 역시 本文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많다.⁷⁴⁾ 다시 말해, 南昌府學本은 閩本·監本·毛本 등 당시 『十三經注疏』 通行本の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원대한 뜻을 이루지 못한 판본이었던 것이다.

73) 阮元, 「江西校刻宋本十三經注疏書後」: “福謹案, 此書尙未刻校完竣, 家大人即奉命移撫河南, 校書之人不能如家大人在江西時細心, 其中錯字甚多, 有監本、毛本不錯而今反錯者, 要在善讀書人, 參觀而得益矣. 校勘記去取亦不盡善, 故家大人頗不以此刻本爲善也.” 또는 『雷塘庵主弟子記』 卷5, 「嘉慶二十一年閏四六月十九日」條 참조.

74) 물론 南昌府學本 校勘記에서 文選樓本을 보충한 부분도 존재한다. 關口順 撰, 水上雅晴 譯注, 「『十三經注疏校勘記』略說」, 238~241쪽; 錢宗武·陳樹, 「論阮元『十三經注疏校勘記』兩個板本系統」(『古籍研究』2008年 卷上) 참조.

단지 通行本 『十三經注疏』에 불완전한 校勘記를 물리적으로 부착해 놓은 것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阮元 스스로 『皇清經解』에서 이 판본을 제외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 『十三經注疏』의 새로운 校勘本の 출간은 실패한 기획에 머무르고 말았다. 汪紹楹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⁷⁵⁾

첫째, 校勘本の 작성에 근간이 되는 底本을 선정할 때 문헌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판본을 구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南昌府學本은 ‘宋本’을 ‘重刊’한다는 의미의 題名을 달고 있긴 하지만, 결국 底本으로 삼은 것은 宋代의 版本이 아니라 元代의 翻刻本이나 明代의 遞修本이었을 뿐이다.

둘째, 『十三經注疏』에 대한 전면적이고 세밀한 校勘을 표방하였지만 그러한 꿈이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 했다. 오히려 闕本·監本·毛本과 같은 기존의 통행본보다 더 잦은 실수가 보이기까지 한다. 注疏 合刻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校勘記』의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南昌府學本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더욱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王國維는 『跋爾雅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阮元이 重刊한 『爾雅注疏』에서는 그 疏文을 모두 이 單疏本에 의거하였다. 그렇지만 經·注와 合刻하였기 때문에, 單疏本에서 ‘經注’에 관해 설명한 부분을 모두 삭제해버렸다. 또한 疏의 글자를 經注本에 따라 고쳐서, 『校勘記』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校勘도 소략하여 누락한 부분 역시 많다. 阮元 重刊本에서 새롭게 생긴 譌脫은 아마 통행본의 두 배는 될 듯하다.⁷⁶⁾

셋째, 원래의 형태를 고증하여 기존의 분권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 했고, 심지어 주요한 구성요소를 빼먹기도 하였다. 가령, 王弼은 『周易』에 注를 달고 따로 『周易略例』를 써서 『周易』 해석의 기본적인 틀을 세웠다. 開成石經에서도 이 『周易略例』를 수록하고 있는데,

75) 汪紹楹, 『阮氏重刻宋本十三經注疏考』(『文史』第三輯, 北京: 中華書局, 1963年) 참조.

76) 王國維, 『跋爾雅疏』, 『觀堂集林』: “阮氏重刊本『爾雅注疏』, 其疏文全據此本. 然因與‘經注’合刻, 故於‘單疏’中復舉‘經注’之文, 多所刊落. 又往往改‘疏’字以就‘經注本’, 故與所撰『校勘記』多不合, 而『校勘』亦多漏略. 阮本之新生訛奪, 抑又倍之.”

오히려 南昌府學本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있다. 阮元이 소장하고 있던 十行本에 「周易略例」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南昌府學本은 이후의 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특히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 『毛詩』의 교감을 맡았던 顧廣圻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였는데, 이를 통해 南昌府學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최근에 十行本을 重刻했다는 판본이 출간되었는데, 그 형식만 十行本과 다르지 않지 字句를 고친 것이 매우 많다. 비록 옳게 고친 것과 그르게 고친 것이 반반이지만, 그냥 믿고 따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⁷⁷⁾

이와 같은 비판은 南昌府學 『重刊宋本十三經注疏』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러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十三經注疏校勘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文選樓本 『十三經注疏校勘記』의 校勘 내용에 따르자면 도저히 원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底本과 자료의 문제

當代 최고의 학술사업 기획자인 阮元이 주도하였고, 학술적 역량을 한창 꽃피우던 삼십대 젊은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당시 『說文解字注』의 완성을 앞두고 있었던 칠십대의 노학자 段玉裁가 검토·감수하였던 『十三經注疏』 校勘本의 출간은 어찌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을까?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은 校勘記의 작성이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략 嘉慶 5년에서 嘉慶 8년 사이에 「考證」이라는 題名の 『校勘記』 草稿가 완성되고 동시에 段玉裁의 감수도 진행되

77) 顧廣圻, 「撫本禮記鄭注考異序·附記」, 『思適齋書跋』, 序一: “近日有重刻十行本者, 款式無異, 其中字句特多改易. 雖當否參半, 但難可徵信, 故置而弗論.” 이 附記는 南昌府學本이 출간된 후 嘉慶 25년(1820)에 쓴 것이다.

었는데, 『十三經注疏』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하면 그 작업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런데 그 작업의 결과인 文選樓本 『十三經注疏校勘記』를 살펴보면 그 작업이 ‘對校’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校勘記』를 작성한 3년은 『十三經注疏』의 통행본, 기존의 여러 가지 校勘성과, 또 注·疏 승척이 이루어지기 전의 單疏本을 비교·검토하여 기록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원래 당시의 학자들은 우선 이러한 校勘記가 작성되면 經·注·疏·釋文의 本文을 확정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校勘記의 완성과 本文의 확정은 전혀 다른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校勘記의 작성이 텍스트 표면 아래의 복잡다단한 심층구조를 밝히는 작업이라면, 本文의 확정은 그러한 심층구조가 야기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판정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올바른 문자를 다시 표면에 하나로 제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對校가 아니라 고도의 학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周禮』 「夏官司馬·馬質」의 “其外否”에 대한 文選樓本 校勘記의 내용을 살펴보자.

其外否: 唐石經이나 여러 판본에서 “其外否”라 하고 있다. 생각건대 ‘否’는 마땅히 ‘不’로 고쳐야 한다. ○ 생각건대 『說文解字』에서 “否는 不이다”라고 했으니, ‘否’를 꼭 ‘不’로 고칠 필요는 없다.⁷⁸⁾

앞에서는 ‘否’를 ‘不’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꼭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는 『周禮』의 校勘을 담당한 臧庸이 문맥을 따져 ‘不’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監修者인 段玉裁가 다시 『說文解字』를 근거로 臧庸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⁷⁹⁾ 南昌府學本에서는 段玉裁의

78) 『周禮注疏校勘記』(文選樓本): “其外否: 唐石經諸本同. 案否當作不. ○按說文云, ‘否, 不也’, 此不必改字.”

79) 唐光榮, 『『十三經注疏校勘記』圈(“○”)後案語作者問題考論』(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참조.

의견을 수용해 이 구절의 本文을 통행본과 같이 “其外否”로 표기하고, 文選樓本 교감기를 그대로 수록해 두었다.

이와 같이 文選樓本의 각 문헌에 대한 校勘記에서는 ‘○’ 표시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의 주장이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文選樓本의 校勘記를 南昌府學本에서는 대폭 삭제하여 두 校勘記 사이의 모순을 줄이려는 모습이 보인다.⁸⁰⁾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감자들 사이의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회피한 채 본문 확정에 급급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本文의 확정은 여러 版本의 對校보다도 훨씬 더 난해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또한 文選樓本 校勘記를 완성한 후 참여 학자들이 모두 해산했기 때문에 『十三經注疏』 本文의 확정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十三經注疏』 本文 확정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그 심층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학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十三經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본문의 확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을 통해 교감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注·疏 습কের 시기에 대한 논쟁을 통해 校勘의 底本과 자료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였다.

당시 十三經局에서 사용한 底本과 자료에 대해서는 文選樓本의 「宋本十三經注疏併經典釋文校勘記凡例」와 각 校勘記 서두의 「引據各本目錄」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十行本’을 底本으로 하여, 기타 宋代 版本과 明代 注疏本(閩本, 監本, 毛本)으로 校對를 진행하였다. 또한 『經典釋文』, 唐宋石經, 각종 經注本, 『十三經注疏正字』, 『七經孟子考文補遺』, 清代의 연구 성과 등을 참고하였다.⁸¹⁾

그런데 각 문헌의 校勘記를 살펴보면, 「凡例」나 「引據各本書目」에서 말한

80) 錢宗武·陳樹, 「論阮元『十三經注疏校勘記』兩個板本系統」(『古籍研究』 2008年) 참조.

81) 『十三經注疏校勘記』 文選樓本의 「引據各本書目」에서 밝히고 있는 底本과 對校本·參考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효신, 「段顧論爭과 清代 校勘理論의 형성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참조.

내용이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尙書』의 경우 실제로 毛本을 저본으로 하였고 毛本과 다른 판본 사이의 行款과 문자의 異同을 열거하고 있다. 『論語』는 十行本을 교감 자료로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十行本을 底本으로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儀禮』 또한 「凡例」에서는 單疏本을 底本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毛本을 底本으로 하여 毛本과 다른 판본 사이의 문자의 차이를 열거하고 있다.⁸²⁾

分卷의 원칙 역시 문헌에 따라 모두 다르다. 『尙書』의 경우는 十行本の 分卷 體裁를 채택했지만, 『周禮』나 『春秋穀梁傳』은 開成石經과 같은 單經本, 『毛詩』는 馬應龍本과 같은 經注本, 『論語』는 皇侃의 『論語集解義疏』를 따르고 있다. 심지어 『孝經』은 그 유래가 불분명한 3권의 체재로 편집하고 있어, 특별한 원칙을 세워 分卷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校勘記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판본을 기존의 교감 성과에서 잘못 인용하기도 하고, 「引據刻本書目」에 보이지 않는 판본을 중간에 갑자기 인용하기도 한다. 李銳의 경우는 의거한 각 판본의 계통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校勘記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錢孫保”를 “錢保孫”으로 인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臧庸은 『春秋公羊傳』의 작업에서 何煌의 校勘本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十行本을 底本으로 삼은 것이라 판단했지만, 사실 何煌 校勘本의 底本은 毛本이었다. 판본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가 많은 後代의 판본으로 상대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前代의 판본을 고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⁸³⁾

82) 汪紹楹, 「阮氏重刻宋本十三經注疏考」(『文史』第三輯, 北京: 中華書局, 1963年) 30~31쪽 참조.

83) 汪紹楹, 「阮氏重刻宋本十三經注疏考」(『文史』第三輯, 北京: 中華書局, 1963年) 31~32쪽 참조.

4. 결론: 『十三經注疏校勘記』의 한계와 의의

文選樓本 『十三經注疏校勘記』를 살펴보면, 阮元和 十三經局에 모인 학자들이 『十三經注疏』 전체를 정밀하게 교감하겠다는 거대한 기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획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十三經局的 학자들은 기존 통행본 사이의 異同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對校한다면 완전한 校勘本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러한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① 확보한 單疏本의 부족과 ② 이론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① 확보한 單疏本의 부족

『十三經注疏』의 교감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注疏 合刻으로 인한 혼란과 오류에서 자유로운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唐宋代의 다양한 필사본 자료를 풍부하게 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十三經注疏』에 속한 각 문헌의 원형에 가까우면서도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상한선은 바로 單疏本이었다. 單疏本은 비록 經文과 注文의 전체를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合刻으로 생긴 오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원형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판본이다.

하지만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十三經局에서 校勘記를 작성할 때는 單疏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했다. 우선 직접적으로 확보한 單疏本은 黃丕烈이 소장하고 있던 『儀禮』와 『爾雅』 뿐이었다. 『周易』의 錢曾 校勘本이나 『春秋穀梁傳』의 李中麓 所藏의 影宋鈔本은 각각 盧文弨의 『群書拾補』와 何煌의 校勘本에서 재인용한 單疏本이다. 盧文弨의 “두 번 읽는 것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양쪽에 모두 傷害를 입히게 되었다[欲省兩讀, 翻致兩傷]”는 명제가 제기된 이후 單疏本의 중요성을 인식하긴 했지만 실제로 확보한 單疏本은 매우 적었다.

② 이론의 결핍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던 古典文獻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經文은 원시텍스트에서 筆寫本을 거쳐 木版本으로 정착하였고, 注는 漢代에 원시텍스트를 문자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생성되어 필사본의 시대에 經文과 결합하였으며, 疏는 筆寫本의 시대에 만들어져 별도로 전승되다가 목판인쇄가 본격화된 시대에 經注와 습합되었는데, 『十三經注疏』는 이 세 층위의 텍스트를 하나의 표면에 보여 주며 그 중층구조를 숨기고 있다. 『十三經注疏』의 校勘이란 결국 세 가지 층위의 텍스트를 분리한 후 그것들 사이의 중층적 관계를 재구성하여 표면 아래 숨겨진 심층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嘉慶 시기 十三經局의 학자들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충실히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우선 『十三經注疏』의 역사성과 중층구조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체화하지 못 했다. 설사 그러한 인식을 항상 유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층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틀이 없었다. 또한 각 텍스트의 심층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교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갖추지 못 하였다.

十三經局의 학자들이 이러한 고전문헌 교감의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결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를 바로 『儀禮』와 『爾雅』의 校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경전의 경우 北宋 시기에 版刻한 單疏本의 실물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校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單疏本의 실제적인 위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對校를 위한 參考本에 불과하였다. 黃丕烈에게 『儀禮』와 『爾雅』의 單疏本을 빌려온 것도 『十三經注疏校勘記』 文選樓本の 「凡例」에서 밝히고 있듯이 단지 “『儀禮』와 『爾雅』는 十行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지,⁸⁴⁾ 單疏本이 『十三經注疏』의 校勘에서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84) 「宋本十三經注疏併經典釋文校勘記凡例」: “儀禮、爾雅無十行本, 而有北宋時所刊之單疏本, 爲賈公彥邢昺之原書.”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하면 『十三經注疏』에 대한 완벽한 校勘記는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이었고, 十三經局의 작업 역시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벽한 校勘記의 완성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작업의 학술사적 의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十三經注疏』에 대한 校勘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가능성이 만들어졌으며, 校勘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김광일, 「사라진 중국책, 일본에서 살아남다: 일존서(佚存書) 전승의 문화적 배경과 그 의미」, 『中國文學』 제57집, 2008
- 김효신, 「段顧論爭과 清代 校勘理論의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후마 스스무(夫馬進), 『연행사와 통신사』, 서울: 신서원, 2008
- 陳鴻三, 「『段玉裁年譜』訂補」,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60本 第3分,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9
- 陳鱣, 『經籍跋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段玉裁, 『經韻樓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關口順 撰, 水上雅晴 譯注, 「『十三經注疏校勘記』略說」, 『經典與校勘論叢』,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5
- 顧廣圻 著, 王欣夫 輯, 『顧千里集』, 北京: 中華書局, 2007
- 黃丕烈 撰, 『黃丕烈藏書題跋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 孔穎達 疏, 『影印南宋越刊八行本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 李慧玲, 「阮刻『毛詩注疏(附校勘記)』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李慧玲, 「試論阮元『十三經注疏校勘記』得以問世的客觀條件」, 『東南學術』 2013年第1期
- 盧文弨, 『抱經堂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0
- 劉錦藻, 『清續文獻通考』(萬有文庫本), 上海: 商務印書館, 1937
- 李慶, 『顧千里研究』(增補本), 臺北: 臺灣學生書局, 2013
- 毛亨 傳, 鄭玄 箋, 孔穎達 疏, 『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11
- 錢宗武·陳樹, 「論阮元『十三經注疏校勘記』兩個版本系統」, 『古籍研究』, 2008
- 永瑢·紀昀 等,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1
- 阮元 編, 『十三經注疏併釋文校勘記』(文選樓本), 續修四庫全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阮元 編, 『重刊宋本十三經注疏』(南昌府學本)[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阮元, 『擘經室集』, 北京: 中華書局, 1993
- 孫殿起, 『販書偶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唐光榮, 「『十三經注疏校勘記』圈(“○”)後案語作者問題考論」, 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 唐光榮, 「『十三經注疏校勘記』中的兩類校勘記」, 『古籍整理研究季刊』 2004. 3
- 唐光榮, 「阮元、段玉裁與『十三經注疏校勘記』」, 『達縣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社會科學版)』 第14卷 第3期, 2004
- 王國維, 『觀堂集林』, 北京: 中華書局, 1996
- 王應麟, 武秀成·趙庶洋 校證, 『玉海藝文校證』, 南京: 鳳凰出版社, 2013
- 汪紹楹, 「阮氏重刻宋本十三經注疏考」, 『文史』, 第3輯, 北京: 中華書局, 1963
- 蕭穆, 『敬孚類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張麗娟 著, 『宋代經書注疏刊刻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 張鑑 等撰, 『雷塘庵主弟子記』(黃愛平 點校, 『阮元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5
- 臧庸, 『拜經堂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周予同 著, 朱維鈺 編校, 『群經概論』, 『周予同經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乾隆朝上諭檔』,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1998
- 何晏 注, 皇侃 疏, 根本遜志 校正, 『論語集解義疏』, 江戶: 大觀堂, 寬政3年(1792)
- 狩野直喜, 「山井鼎と七經孟子考文補遺」, 『支那學文藪』, 京都: 弘文堂, 1927
- 山井鼎, 『七經孟子考文補遺』, 『叢書集成初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水上雅晴, 「段玉裁と十三經注疏校勘記」, 『中國哲學』 第31號, 札幌: 北海島中國哲學會, 2003
- 長澤規矩也, 「越刊八行本注疏考」, 『書誌學論考』(『長澤規矩也著作集』), 東京: 汲古書院, 1982
- 長澤規矩也, 「正德十行本非宋本考」, 『書誌學論考』(『長澤規矩也著作集』), 東京: 汲古書院, 1982
- 足利學校遺蹟圖書館 編, 『足利學校貴重書目錄』, 栃木縣: 足利學校遺蹟圖書館, 大正14年(1925)

Abstract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Thirteen Classics Collation
in Qing Dynasty

Kim, Hyo-shi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crutiniz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compilation of the Thirteen Classics Collation in Qing Dynasty and to investigate of the significance of it. Since Southern Song Dynasty, the Thirteen Classics are published in combined form of Jing[經], Zhu[注], and Shu[疏], and the typical type is the “ten lines version of Song Dynasty”. In Ming and Qing Dynasties, Min version[閩本], Jian version[監本], and Mao version[毛本] are circulated in popular, but these versions had a great deal of errors. The scholars who had recognized these problems tried to compile the revised version of the Thirteen Classics. Especially, they gave attention to the combined form of Zhu and Shu, and fou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rrors. As a result, they failed the perfect collation eventually, but developed the methodology of textual criticism of the classics.

Key words: The thirteen classics collation, combined form of Zhu and Shu, addition of Right Meaning[正義], Ruan Yuan[阮元], Duan Yucai[段玉裁], textual criticism

투 고 일 : 2017. 4. 10. / 심 사 일 : 2017. 4. 15. ~ 2017. 5. 15. / 게재확정일 : 2017. 5. 20.